
한국의 미래 ODA 시행 방향에 대한 제언

2023. 09. 30.

고려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KUBIG

건축사회환경공학부 장원준

통계학부 방서연

경영학부 정하윤

목 차

Ⅰ 서론

- 1) 한국의 ODA1
- 2) 글로벌 ODA 동향1
- 3) ODA와 통계3

Ⅱ 본론

- 1) 연관성 분석4
- 2) 글로벌 ODA와 외부 변수 간 연관성 분석4
- 3) 한국의 ODA와 외부 변수 간 연관성 분석5
- 4) 시각화를 통한 한국 ODA 실태의 통계적 접근6
- 5) ODA 이행 성과에 따른 DAC 회원국 군집화7

Ⅲ 결론

Ⅳ 사용할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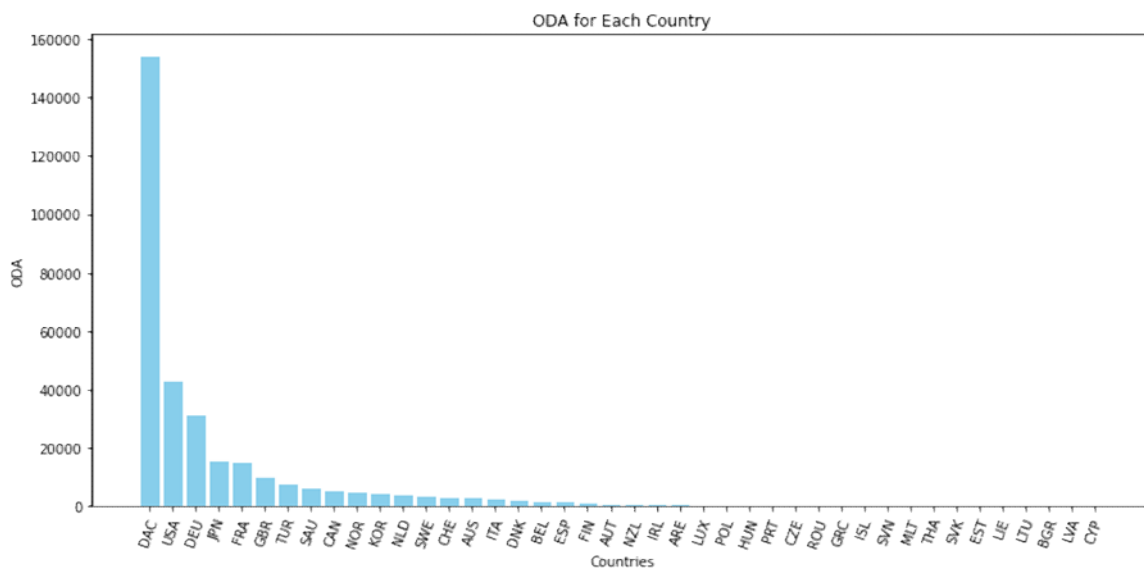
- 1) OECD Data9
- 2)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9

1 서론

□ 한국의 ODA

-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을 벗어나 2009년부터 DAC의 회원국이 되어 공적개발원조 진행
- 한국의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공적개발원조)는 2010년 1,174,000,000달러를 기록하여 1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으며, 2016년 2,246,000,000달러로 20억 달러 규모 초월
- ODA 요구액 규모는 2018년 3조 482억 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4조 7,771억 원을 달성, 2024년에는 6조 8,421억 원으로 최대 규모 편성 (2023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)

□ 글로벌 ODA 동향



<그림 1, 2021년 DAC 회원국가별 ODA 규모 비교 시각화>

- ODA 재원 확보의 필요성 심화
 - 민간 재원 확보 및 금융 시스템 개혁 요구
- GNI 대비 ODA 비율 국가별 목표 달성 상이
 - 1970년 UN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GNI(국민총소득)의 0.7%를 ODA에 할

에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하였으나,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

- 2021년 평균 OECD DAC 회원국의 ODA 달성률은 GNI의 0.39%
- 한국은 2022년 기준, 전체 30개 회원국 중 지원 규모 순위로는 16위이며 ODA/GNI 비율은 0.17% 수준

○ 2010-12년에서 2019-21년까지의 성과 변화

- 수혜국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원조를 더 근접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국별 프로그램 원조(Country Programmable Aid, 이하 CPA)은 54.3%에서 47.5%로 감소
- (인프라 및 시설)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양적인 ODA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
- (인도적 지원) 인도주의적 및 식량 지원은 10.0%에서 15.2%로 증가하였으며, 기부국의 난민 비용은 양자간 ODA의 4.0%에서 8.0%로 두 배 증가
- (기후 및 환경) 개발도상국 기후 조치를 위해 2025년까지 연간 USD 1000억 원을 동원하는 공동 목표 설정, ODA 비율은 29.3%에서 35.9%로 상승
- (분배) 필요에 따른 ODA 우선순위 배분은 중요한 기반이지만, 효과적이고 가능성 있는 원조 전략에 대한 고려로 인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의 원조는 감소하고 있음

○ DAC 성과의 변동성

- ODA 예산은 경제 전망의 악화 · 의존도 · 채무 · 불법 금융 흐름 · 화폐 가치 변동 등 다양한 재정 상황 요인에 영향을 받음
- 개발도상국에게 ODA는 외부 자금의 세가지 주요 원천 중 하나(FDI, 송금, ODA)이며, 이러한 변동성은 개발도상국에게 취약성 초래

○ ODA의 현대화 과정

- 상호책임성 달성을 위해 원조와 SDGs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, ODA의 현대화 과정 달성 중

- 높은 품질의 데이터와 통계시스템은 개발 협력 체계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어,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수집과 통계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
- ODA의 품질 및 배분 개선을 위해 수혜국 선택, 프로젝트 크기, 금융 유형 고려, 공공 조달 시스템 개선 및 지원금 등 필요

□ ODA와 통계

- 한국의 ODA 규모 증가율
 -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가율로 나타나는 한국의 ODA 규모는 매년 증가
 - 국내 경제 지표와의 비교 및 실질적 측면에서의 증액 여부 파악
 - 원·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시 ODA 총액 감소
- 한국의 GNI 성장과 ODA/GNI 비율 변동
 - 한국의 ODA/GNI 비율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스페인, 이탈리아 대비 낮은 수준이며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

2 본론

□ 연관성 분석

-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증가 추세
- ODA와의 ‘상관성’을 가진 변수 탐색 시 통계적 오류 발생 가능
 -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구수, 탄소 배출량과 같은 비상관 변수와 매우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통계적 오류
 - 글로벌 ODA 산정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범주의 외부 변수 파악 필요
 - 2023년 한국의 ODA 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 이벤트성 변수 파악

□ 글로벌 ODA와 외부 변수 간 연관성 분석

1) 외부 연관 변수

- 경제
 - Gross Domestic Product(GDP, 국내 총생산), Exchange Rate(환율)
 - (수원국) 특정 분야의 ODA의 경우,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 GDP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음
 - (공여국) 소득이 높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ODA를 조달할 것이며, 통화 간의 가치 변동에 따라 ODA 예산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
 - GDP와 관련한 GNI, GDP per hour worked 등 분석 가능
- 개발
 - Human Development Index(HDI, 인간 개발 지수). 유엔 개발 계획(UNDP)에서 인간 개발(Human Development)의 측정을 위해 발표한 지표
 - ODA의 효과적인 분배 및 규모 결정을 위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
- 기술
 - Infrastructure investment(인프라 투자), Gross domestic spending on

R&D (R&D에 대한 국내 총지출)

- ODA는 지속가능발전을 기반으로 지원되며, 이는 인프라 개발 및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두 지표가 ODA 지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

○ 교육

- Education spending(교육비 지출)
- 교육 분야의 ODA 교육 수준 향상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, 해당 지표가 ODA 규모와 연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

○ 연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수 수정 가능

2) 2000년, 2010년, 2020년 지표 비교

- 각 시기의 국가별 ODA 지원 분야와 상기 지표 간의 변화 시각화
- 시기별 ODA 규모 및 주요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지표 분석

□ 한국의 ODA와 외부 변수 간 연관성 분석

1) 2023 한국 ODA 세부 지원 내역으로 살펴보는 외부 변수

○ 전쟁 특수 (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)

- 식량 위기 등 해외 긴급 구호 특수 상황에 쓰이는 인도적 지원금 2천 366억 원

○ 질병 (COVID-19)

-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제 공조체계인 ACT-A(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 및 공평 배분 보장 위한 이니셔티브) 1억 달러

○ 사회 (부산 엑스포 유치)

- 2030 부산 엑스포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발도상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780억 원 (전년 대비 678% 증가)

○ 투자

- 성장 잠재력 큰 아프리카,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 ODA 2천 385

억원, 972억 원 (전년 대비 각각 34.9%, 46.4% 증가)

○ 국제 입지

- 2025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의장국 수입 기반 마련 6억 원
- 세계신안보포럼 예산 26억
-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(PSI) 고위급 회의 위한 신규 예산 10억 원

2) ODA 집행 목적

- 국제 특수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ODA 집행
- 한국의 부산엑스포 유치,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ODA 예산 편성

□ 시각화를 통한 한국 ODA 실태의 통계적 접근

1) ODA/GNI 추이

-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지표(GNI,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)와 ODA 규모의 변동 시각화 및 비교
- 한국의 ODA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있게 증액하였는지 파악

2) CPA

- 한국의 CPA 변동 추세 분석
- 최신 동향
 - 한국은 빈곤국 지원 비중 및 CPA 비중이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크게 저조해, ODA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최하위 (KOICA 정책연구실)
 - 2015년에는 \$10.364M가 한국의 CPA 액수로 산출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\$0.529M로 최저점을 찍었으며, 2021년에는 \$2.216M로 회복됨
 -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ODA에 비해 CPA는 비교적 증감의 변동이 큼

3) 환율

- 한국의 금리 변동과 유상원조 간 연관성 분석
- 원·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 시 ODA 총액 감소
- 유상원조 시 증여율, 양허성 수준 고려
 - 양허성 수준의 경우 한국의 평균 상업참고금리(국채수익률)을 반영하여 할인율 적용

□ ODA 이행 성과에 따른 DAC 회원국 군집화

- OECD DAC 회원국 군집화와 국가별 정책 심층분석
- 군집화 피쳐
 - (회원국 경제 지표) 국가 GNI 수준, 국가 순 ODA 규모
 - (ODA 규모) ODA/GNI 비율
 - (원조 지원 분야) Social infrastructure/Economic infrastructure/
Production/Multisector/Programme assistance/Debt relief/
Humanitarian aid/Unspecified, 총 8가지
 - (지원대상국별 비율) 최빈개도국(LDCs), 기타 저소득국(Other LICs), 중
소득국(LMICs), 고중소득국(UMICs)
- 분석 목표
 - 성공적으로 원조를 조달하는 국가들의 정책과 지원 제도를 보고서로
확인하며 한국의 미래 원조 이행 방안에 대한 맞춤형된 정책 제언

3 결론

- ODA 규모와 외부 변수 간 연관 분석
 - 경제 관련 요소(GDP, 환율), 개발 관련 요소(CPA, HDI), 기술 관련 요소(인프라 투자, 국내 R&D 지출), 교육 관련 요소(교육비 지출) 등 다양한 지표를 변수로 설정
 - 외부 변수가 ODA 규모, 효율성 및 지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 - ODA 규모와 여러 변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표 기반 ODA 의사 결정 가능
- 한국 ODA 실태의 통계적 접근 및 시각화
 - 한국의 경제지표 (GNI,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)에 따른 ODA 총액의 변동 양상 파악
 - 한국 CPA 지표의 증감 추세 분석
 - 금리·환율 변동에 따른 한국의 유상원조 양허성 수준 변동 파악
- 군집화를 통해 효과적인 원조 이행 성과를 보이는 국가와 한국의 정책 비교
 - 단순 원조 규모만이 아닌 수혜 국가 선정, 지원 분야까지 세부 지표로 설정해 클러스터링 진행
 - 한국과 유사하지만 더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는 국가의 정책을 심층 분석
 - 한국 맞춤형 향후 국제원조 이행 방향 정책적 제언
- (최종 목표) 한국의 미래 ODA 시행 방향 제안

4 사용할 데이터

☐ OECD Data

- 회원국가별 Net ODA (연간 순 ODA 규모 추이)
- 회원국가별 ODA by sector (8가지 분야별 ODA 조달 규모)
- 회원국가별 Exchange rate(환율)
- 회원국가별 Gross domestic product (GDP)
- 회원국가별 Infrastructure investment(인프라 투자)
- 회원국가별 Gross domestic spending on R&D (R&D에 대한 국내 총 지출)
- 회원국가별 Education spending(교육비 지출)

☐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

- Human Development Index (HDI)

*분석 진행 방향에 따라 추가 예정